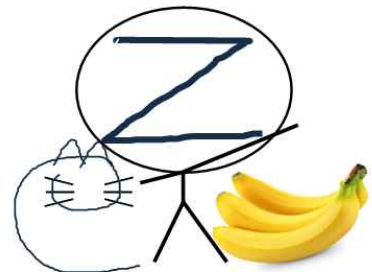


# Zola

## 자료제시형 면접

차례

1. 칭찬받는 요약 답변 zola 연습 2쪽~
2. 칭찬받는 비교 답변 zola 연습 17쪽~
3. 칭찬받는 적용 답변 zola 연습 29쪽~
4. 칭찬받는 견해 답변 zola 연습 42쪽~
5. 칭찬받는 통계 답변 zola 연습 57쪽~
6. 종합 실전 zola 마무리 1 66쪽~
7. 종합 실전 zola 마무리 2 72쪽~
8. 종합 실전 zola 마무리 3 79쪽~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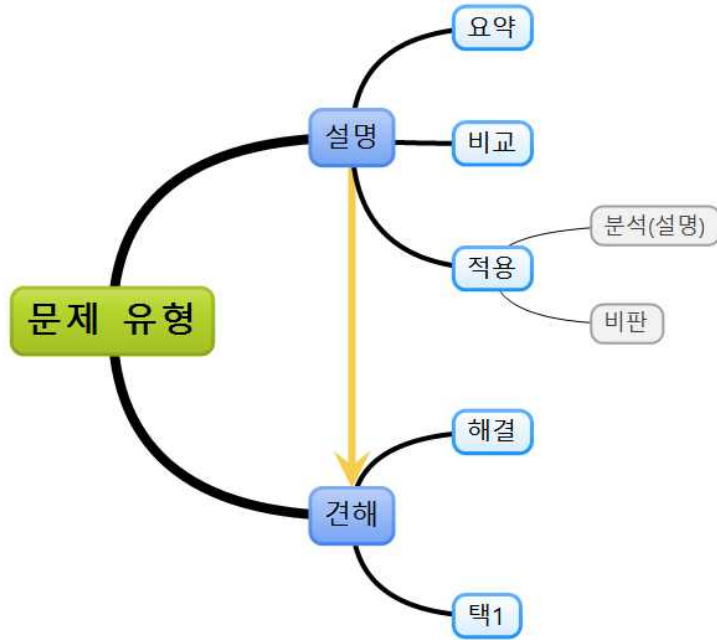
## 칭찬받는 요약답변 zola 연습

- \*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대학의 공개 자료들은 출처를 밝혔습니다. 대신에 본 강의가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출처는 모두 영어 첫 글자로만 나타내었습니다.
- \*\* 같은 회차에 경희대와 고려대처럼 영어의 첫 글자가 같은 대학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숫자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를 K1, 고려대를 K2로 나타내는 식입니다.
- \*\*\* 번호가 같아도 회차가 다르면 서로 다른 대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의 S1은 성균관대이지만, 2회의 S1은 서울대일 수 있습니다.

#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표] 문제 유형 구분표



## 1. 설명형

설명형은 기본적인 사실 내지는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주장형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주장 과정에는 설명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명형의 예(기출)]** 최근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등 원전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논리와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리를 각각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설명해 보시오.

## 2. 견해형

견해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택1형과 해결형이 그것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견해형의 예(기출)]** 최근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등 원전유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논리와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리를 각각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설명해 보시오.

## 3. 공통점

62~3쪽의 TCRE에 대해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아주 중요한 내용임.

간단히 말해 **T**는 주제(topic), **C**는 마무리(conclude), **R**은 논리적 이유(reason), **E**는 사실적 근거(evidence/example)임. TC는 주제문이 되고 R과 E는 뒷받침문이 됨.

# 요약

## I. 논제

자료제시형 문제는 각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작업 즉 제시문의 핵심을 정리하는 요약이 필수 문제로 출제된다. 대부분의 요약 문제들은 논제의 일부 예를 들면, 제시문의 요지를 말한 후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하지만 논제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시문 요약이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되기도 한다.

### ● 논제의 예

[S1] 제시문 1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하십시오.

[D] 윗글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 II. 대원칙

의외로 요약을 제시문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 정도로만 아는 수험생이 많다. 이렇게 알아가지고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하다 아니다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정리해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Zola가 알려주는 요약의 원리를 잘 알아두길 바란다.

요약의 대원칙은 썬(SSEL)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 
- **Select** : 제시문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요약해야 함
  
  - **Short** : 간결하게 요약해야 함
  
  - **Eesy** : 알기 쉽게 요약해야 함
  
  - **Logic** : 논리적으로 요약해야 함
-

### III. 주의사항

요약할 때는 네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래 제시문을 이용하여 설명하겠다.

[제시문] 김준호는 '경상도 장남 B형'의 나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경상도여서 여자를 우습게 보고, 장남이어서 엄마 눈치를 보며, B형이어서 자기 멋대로이다. 한마디로 정말 Uraziltic 성격이다.

첫째, 제시문에 없는 내용-에나 비유 등등-이 있으면 안된다. 요약은 말 그대로 제시문을 줄이는 것이다. 제시문에 없는 내용은 제시문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언급되면 안된다.

[김준호의 성격을 속담에 비유하자면 '설상가상'이다.]

[김준호는 성격은 나쁘지만 사악한 인간은 아니다.]

☞ 김준호의 성격이 '설상가상'인 것은 맞다. 그리고 김준호가 사악한 인간이 아닌 것도 맞다. 하지만 제시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 아래 확인을 보자.

#### [확인] S1 채점평

요약과 논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었다. ...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이 되지만, 제시문에서 보여주지 않은 내용, 즉 자신이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등의 불필요한 서술들은 모두 요약의 기본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시문에 대한 평가는 요약이 아니다!

[제시문의 내용은 타당하다/타당하지 못하다.]

☞ 요약은 제시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줄이는 작업이다. 제시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 [확인] S1 채점평

요약과 논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었다. ... 역사를 보는 관점에 관한 자신의 입장 및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셋째, 본문 내용 특히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제시문의 독해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단, 중요 단어(핵심어나 핵심어구)는 활용해야 한다!

**[김준호의 성격은 경상도 장남 B형적인 Urazilitic 성격을 보인다.]**

☞ 요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키워드·핵심어·주제어라 불리는 것들)은 가급적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표현들은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바꾸어 주어야 한다. 다음 확인을 보자.

---

**[확인] S1 채점 기준**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제시문에서 키워드들을 포착해 이들을 활용,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주요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발췌하기 보다는 ... 제시문의 키워드(자유, 소득, 돈,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도)들을 활용해서 논지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제시문의 논증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 IV. 요약과 요지

요약과 요지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약과 요지의 구분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를 보자.

[제시문] 김준호는 '경상도 장남 B형'의 나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경상도여서 여자를 우습게 보고, 장남이어서 엄마 눈치를 보며, B형이어서 자기 멋대로이다. 한마디로 정말 Uraziltic 성격이다.

- 위 제시문을 요약해라.

[김준호의 성격은 나쁘다.]

- 위 제시문의 요지를 밝혀라.

[김준호의 성격은 나쁘다. 그래서 \_\_\_\_\_ 등등]

☞ **Zola Guide** 시험에서 요약과 요지를 구분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 V. 요약 답안의 기본 형식=TC+R

요약을 비롯한 모든 답안의 기본은 TCR이다. TC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주제문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RE를 합치면 뒷받침문(논거)이 된다. 주제문과 뒷받침문이 합쳐지면 하나의 완결된 답안이 되며 국어에서는 이것을 단락(문단)이라고 한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TCRE는 문단을 만드는 법이기도 하다.

다만, 요약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E가 대체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약은 TCR로 구성된다. 여기서 TC가 주제문(답, 결론)이 되며, R이 뒷받침문(논거)이 된다.

# Zola 연습

☞ **Zola Guide**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자. 각각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은 5분 내외(±2분)면 적당할 듯 싶다. 실제 면접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 시간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풀이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시 요강 또는 입학처에 확인하길 바란다.

[1. E 활용]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약 12세기까지 중세 예술은 아동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동기를 묘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실수나 무능력 때문에 아동기를 제쳐놓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아동기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11세기 유럽의 한 세밀화는 당시 화가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신체를 변형시켰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예수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서 장면을 담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 원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아주 어린 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세밀화 속의 예수 옆에 모여 있는 8명의 남자들은 아동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단순히 축소되지만 했을 뿐으로, 크기로만 성인 남자와 구별될 뿐이다. 11세기말 성 니콜라스의 부활 장면을 담은 프랑스의 한 세밀화도, 성인 남자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단지 몸집만 작아졌을 뿐인 3명의 아이들이 소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가는 성인 남자의 근육을 가진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을 주저 없이 그리고 있다. 12세기 말 혹은 13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성 루이 드 레드의 시편을 보면 막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인 남자처럼 복부와 흉부에 근육을 갖고 있다. 많은 감정과 의식을 불어넣기는 했지만 13세기에도 아동기에 대한 묘사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 방식에 충실했다.

[문제] 제시문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원고지 100~200자 또는 3문장 이내)

[참고] 원고지(20칸×10줄)




[2, S2] 제시문은 문자 등장 전의 사회를 설명한 글이다.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오랜 시간동안 인류의 소통은 주로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연스레 소리의 특성이 구술 시대 인간의 의사소통을 특징지었다. 소리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말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다 곧 사라지고 말아서 소리로 전달하는 말은 '지금', '여기'의 경험을 전달하고 삶의 상황을 담아낸다. 서로의 이야기를 매개할 수단이 없으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소통이란 물리적 실재와 시공간의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기록 수단이 없던 구술 문화 시대에 인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소리로 된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 기억의 방법과 표현을 발전시켰다.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달해 있었다. 기억 전략도 뛰어났다. 현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식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형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운율을 타는 표현을 사용해 많은 기억을 머리에 담아두곤 했다. 고대의 음유시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분량의 역사나 전설을 노래하곤 했다.

[문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시오.(원고지 100~200자 또는 3문장 이내)

[참고] 원고지(20칸×10줄)


[3. C 활용]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전자정보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그 속도이다. 뉴스 전달 속도는 며칠 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분으로 측정된다. 컴퓨터는 더구나 즉각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속도가 민주적 논의에 적절한 것인가? 전자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난제는 전자고속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생각, 인내심 및 재고(再考)를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의회에서 입법절차상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독회(讀會)를 요하는 경우가 잦다. 그 이유는 졸속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즉각적인 사고(思考)를 유발하며, 이는 종종 여과되지 않은 편견과 오만에 의한 의견 표출을 야기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디지털 매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성이다. 이는 2진법적인 이원주의(二元主義)의 성향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예/아니오' 식의 여론조사와 2개 정당간의 선택으로 대의민주정치를 촉진한다. 강력한 민주주의는 선다형 판단을 요하고 선다형 의견이 가져오는 복잡성을 요하므로 이원주의적 편향은 특히 염려스러운 문제이다. 양극적인 대안간에 무조건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구하려 할 때, 의견 합일이나 최소한의 미묘한 입장 조화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자정보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들을 나누고 고립시키고 원자화시키는 경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한 개인은 자판과 화면 앞에 혼자 앉아 바깥 세상과는 가상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며, 전자적 픽셀(pixel,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화소(畫素). picture element의 약자)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짓는 유일한 연락책이 된다. 우리는 전세계의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면, 이웃들이나 남편과 아내 및 동료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줄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의사소통 단절과 이웃끼리의 갈등이 컴퓨터에 의한 장거리 통신의 기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정보화에 대한 제시문의 입장을 설명하시오.(원고지 100~200자 또는 3문장 이내)

[참고] 원고지(20칸×10줄)


[4, S3]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Zola Guide** 한자어를 모를 경우 맨 아래를 참고할 것. 단, **인문계 특히 어문계열, 역사, 철학계열 쪽은** 최대한 여러분의 한자어 실력으로 풀어볼 것. 한자어를 몰라도 답변을 해 볼 것.

眞理의 오묘함을 보라. 진리는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법에 묶여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낸다. [중략]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쓰고 말하는 特權으로 인해, 激論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 토론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神殿이 지금 무의미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教義의 온갖 소리가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풀려 있다 할지라도 진리 역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許可와 禁止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진리와 虛僞가 맞붙어 論爭하게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진리를 향한 論駁이 허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문제] 제시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단, 한자어를 모를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할 것. (원고지 100~200자 또는 3문장 이내)

[참고] 원고지(20칸×10줄)


[한자어]

眞理 : 진리, 特權 : 특권, 激論 : 격론(격렬한 논쟁), 神殿 : 신전  
 教義 : 교의(특정 종교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종교적 가르침), 許可 : 허가  
 禁止 : 금지, 虛僞 : 허위, 論爭 : 논쟁, 論駁 : 논박

[5, S3]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왕 - 과인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자 - 가능합니다.

왕 - 무슨 연유로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자 -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자를 보고, “그 소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흔종(罽鐘)\*에 쓰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왕께서 “소를 놓아주어라. 소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을 내 차마 볼 수가 없다.” 하시자, 그 사람이 “그러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물었고, 왕께서는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소 대신에 양(羊)으로 바꾸어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왕 -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자 -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재물이 가까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아무리 작다 하나 내 어찌 소 한 마리가 가까워서 그랬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현자 - 재물이 가까워서 그랬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었기에 그런 것인데, 저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소가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어째서 양은 소와 달리 생각하셨습니까?

왕 - 그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내가 재물이 가까워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보면 백성들이 나더러 재물을 가까워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흔종: 새로 종을 주조하면 소를 잡아 그 피를 종의 틈에 바르는 의식

[문제]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현자가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원고지 100~200자 또는 3문장 이내)

[참고] 원고지(20칸×10줄)


**Zola 간단 해제**

[1, E활용]

제시문

①약 12세기까지 중세 예술은 아동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동기를 묘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②실수나 무능력 때문에 아동기를 제쳐놓았다고 믿기는 어렵다. ③오히려 이 시대에는 아동기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④11세기 유럽의 한 세밀화는 당시 화가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신체를 변형시켰음을 보여준다. ⑤이 그림은 예수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곁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복음서 장면을 담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 원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아주 어린 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⑥그런데 세밀화 속의 예수 옆에 모여 있는 8명의 남자들은 아동기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⑦단순히 축소되기만 했을 뿐으로, 크기로만 성인 남자와 구별될 뿐이다. ⑧11세기말 성 니콜라스의 부활 장면을 담은 프랑스의 한 세밀화도, 성인 남자와 크게 구분되지 않고 단지 몸집만 작아졌을 뿐인 3명의 아이들이 소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⑨화가는 성인 남자의 근육을 가진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을 주저 없이 그리고 있다. ⑩12세기 말 혹은 13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성 루이 드 레드의 시편을 보면 막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인 남자처럼 복부와 흉부에 근육을 갖고 있다. ⑪많은 감정과 의식을 불어넣기는 했지만 13세기에도 아동기에 대한 묘사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 방식에 충실했다.

① T+C

②③\* R

④~⑦E1+⑧~⑨E2+⑩~⑪E3

\* ③의 의미가 불분명함. ④를 활용해서 ③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음

TC 중세 예술 - 아동기를 (어른과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음

R 아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

[2, S2]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오랜 시간동안 인류의 소통은 주로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자연스레 소리의 특성이 구술 시대 인간의 의사소통을 특징지었다. 소리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말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다 곧 사라지고 말아서 소리로 전달하는 말은 ‘지금’, ‘여기’의 경험을 전달하고 삶의 상황을 담아낸다. 서로의 이야기를 매개할 수단이 없으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소통이란 물리적 실재와 시공간의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기록 수단이 없던 구술 문화 시대에 인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소리로 된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 기억의 방법과 표현을 발전시켰다.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은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달해 있었다. 기억 전략도 뛰어났다. 현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식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형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운율을 타는 표현을 사용해 많은 기억을 머리에 담아두곤 했다. 고대의 음유시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분량의 역사나 전설을 노래하곤 했다.

TC 문자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구술 시대, 구술 문화 시대)의 인류의 특징은 2가지이다

R (1) 시공간의 물리적 공유, 현재 강조

(2) 기억력 및 기억전략 발달

[대학측 평가 기준]

① 구술 시대-인류의 특징

○ 시공간의 물리적 공유, 현재 강조

○ 기억력 및 기억전략 발달

## [3. C 활용]

전자정보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그 속도이다. 뉴스 전달 속도는 며칠 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분으로 측정된다. 컴퓨터는 더구나 즉각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속도가 민주적 논의에 적절한 것인가? 전자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난제는 전자고속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생각, 인내심 및 재고(再考)를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의회에서는 입법절차상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독회(讀會)를 요하는 경우가 잦다. 그 이유는 졸속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즉각적인 사고(思考)를 유발하며, 이는 종종 여과되지 않은 편견과 오만에 의한 의견 표출을 야기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디지털 매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성이다. 이는 2진법적인 이원주의(二元主義)의 성향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예/아니오' 식의 여론조사와 2개 정당간의 선택으로 대의민주정치를 촉진한다. 강력한 민주주의는 선다형 판단을 요하고 선다형 의견이 가져오는 복합성을 요하므로 이원주의적 편향은 특히 염려스러운 문제이다. 양극적인 대안간에 무조건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구하려 할 때, 의견 합일이나 최소한의 미묘한 입장 조화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자정보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들을 나누고 고립시키고 원자화시키는 경향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한 개인은 자판과 화면 앞에 혼자 앉아 바깥 세상과는 가상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며, 전자적 픽셀(pixel,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화소(畫素). picture element의 약자)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짓는 유일한 연락책이 된다. 우리는 전세계의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면, 이웃들이나 남편과 아내 및 동료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줄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의사소통 단절과 이웃끼리의 갈등이 컴퓨터에 의한 장거리 통신의 기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TC 전자정보기술과 민주주의 - 안 맞음

R (1) 인터넷의 즉각성은 민주주의의 인내심에는 부적절하다.

(2) 전자정보기술에서의 이원적 사고는 민주주의의 다원적 사고와 맞지 않다.

(3) 민주주의에서는 이웃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전자정보기술은 개인을 고립시킨다.

## [4. S3]

眞理의 오묘함을 보라. 진리는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법에 묶여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낸다. [중략]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쓰고 말하는 特權으로 인해, 激論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 토론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神殿이 지금 무의미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教義의 온갖 소리가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풀려 있다 할지라도 진리 역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許可와 禁止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진리와 虛僞가 맞붙어 論爭하게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진리를 향한 論駁이 허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TC 토론을 자유롭게 해라. 토론을 방해하지 마라.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해라

R 자유 토론일 때 진리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임(진리가 허위를 이길 수 있기 때문)

[5, S3]

☞ **Zola Guide** 동양 고전이 면접 제시문으로 종종 등장한다. 동양 고전은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비유나 상징 등이 많이 사용되거나 설명이라고 해도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의 제시문 이해력을 측정하기가 쉽다. 대부분의 질문은 제시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부터 시작한다.

게다가 동양 고전 중에는 문학 작품적 성격이 강하거나 문학 작품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학은 가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 현실과 관련이 깊다. 즉, 문학 작품의 경우 실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철학적 질문이나, 시사 관련 질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왕 - 과인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자 - 가능합니다.

왕 - 무슨 연유로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자 -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자를 보고, “그 소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이 “흔종(罽鐘)\*에 쓰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왕께서 “소를 놓아주어라. 소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死地)로 끌려가는 것을 내 차마 볼 수가 없다.” 하시자, 그 사람이 “그러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물었고, 왕께서는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소 대신에 양(羊)으로 바꾸어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왕 -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자 -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재물이 가까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왕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아무리 작다 하나 내 어찌 소 한 마리가 가까워서 그랬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현자 - 재물이 가까워서 그랬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었기에 그런 것인데, 저들이 어찌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소가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어째서 양은 소와 달리 생각하셨습니까?

왕 - 그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내가 재물이 가까워서 소 대신에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보면 백성들이 나더러 재물을 가까워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 **흔종**: 새로 종을 주조하면 소를 잡아 그 피를 종의 틈에 바르는 의식

TC ‘그런 마음이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왕의 ‘차마 볼 수 없는’ 마음에 있습니다.

R 죄 없는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 백성에게도 적용되면 백성을 사랑하는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자는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측 평가 기준]

\* **출제의도** : 글을 읽고 전체 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합적으로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해설** : “그런 마음”과 “왕다운 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각각 찾고, 이 두 부분을 종합적이고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제시문의 전체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참고] 언론에 소개된 풀이(대학측이 공개한 답안이 아님)

☞ **Zola Guide** Zola의 답안과 비교해 보길 바란다. 어느 쪽이 더 깔끔하게 잘 정리했는지를.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사교육 자료들은 어른들의 지식 자량에 가까운 답안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하길 바란다.

현자가 왕에게 "그런 마음이면 족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고 말한 것은 왕이 눈앞에서 끌려가는 소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 재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보여준 '애처로워하는 마음'이 '왕 다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왕 다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마음'은 '측은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고 이를 차마 어찌하지 못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처럼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차마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으로 백성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왕 다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Zola Guide** 주의 - 맹자의 '측은지심'에 대한 지식 필요X



# 2

칭찬받는 비교답변  
zola 연습

# 비교

## I. 논제

일상적으로 비교라는 단어는 ‘차이점’에 주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살피는’ 것이다. 입시에서 사용하는 비교의 의미도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즉, **비교하라고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하라는 의미**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교하라는 대신에 ‘차이점을 말하시오’, ‘공통점을 제시하시오’라는 식으로 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논제는 항상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복수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각 제시문에 대한 단순 요약이 아닌 비교 요약 즉, 비교·대조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와 (나)를 요약하라’는 논제는 ‘(가)와 (나)를 간략하게 비교(대조)하라’ 혹은 ‘(가)와 (나)의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해라’는 논제와 같다.

### ● 논제의 예

[K] (라)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

[S1] 아래 글은 일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A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A와 어머니의 일기쓰기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H]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S2] 오뒷세우스와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시오.

## II. 비교의 원리

### 1. 공통점과 차이점

일반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할 경우에는 공통점을 먼저 제시한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공통 주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통 주제가 제시되는 부분이 답변의 도입부(앞머리)가 된다. 또 분량으로 보면 대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부분은 차이점을 제시하는 부분보다 분량이 적다(최소한 차이점을 제시하는 부분보다 더 길지는 않다). 이유는 우선 공통점은 내용적으로 두 제시문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내용이 하나이지만 차이점은 두 제시문의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줘야 하므로 내용이 둘 이상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내용을 보여주는 공통점보다 둘 이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다. 또 공통점(공통 주제)을 제시하는 부분은 글로 따지자면 도입부(서론, 머리말)의 역할을 하는데, 도입부는 본론보다 짧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2. 기준

#### (1) 기준을 설정하자!

대개의 학생들은 비교하라고 하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그냥 열거(나열)한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나열하는 것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나열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가 아니면 논술의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동건은 연예인이고 예쁜 아내가 있다. 그리고 Zola는 경상도 장남 B형이다.’라는 문장은 장동건과 Zola를 비교(대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건 그냥 나열일 뿐이지, 비교의 논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비교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다.

#### (2) 기준의 출처

아래 확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확인] S3 채점 기준

[논제] 제시문 <가>와 <나>의 ‘대중’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채점 기준]

-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 - ‘대중’ 혹은 ‘군중’이라는 집합체(집단)의 특성
- 제시문 <가>와 <나>의 차이점
  - (1) 집합체(집단)의 성격 규정 요소의 차이
  - (2) 집합체(집단) 속 개인의 행위 양상이 갖는 차이

기준은 논제 혹은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주제어(키워드,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기준은 주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선은 논제를 보고, 다음으로 제시문을 보면서 기준이 되는 키워드(주제어)를 선택(select)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확인의 경우에는 ‘대중’이라는 기준(키워드, 주제어)가 논제에 제시되어 있다. 당연히 제시문도 대중에 대한 글이다.

수험생 입장에서 최악의 문제는 대학에서 일부러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제어를 숨기는 경우이다. 이는 수험생의 독해 능력으로밖에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와 ‘정확한’ 요약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이 강의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학 문제들을 보면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기준 설정에 자신이 없다면!

자, 다시 생각해 보자. 기준을 왜 설정할까? 그것은 기준을 설정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혹은 기준에 자신이 없더라도 우리들은 차이를 분명히 드러나게끔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 여러분은 답안의 결론(TC)와 논거(RE) 부분의 **핵심어(키워드)**를 서로 **대립점이 분명하게끔 표현(반대어, 대립어 적극 사용)**해 주는 것으로 기준 설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답안을 **대구(대응)의 형식**을 취해서 내용의 차이가 형식적으로도 더 부각되게끔 한다면 좋을 것이다. 단,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대구(대응)의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Zola Guide** 기준 설정하지 않고 답변하는 법

TC(결론) + RE(논거)

Zola의 아내는 못생겼다. 그녀의 눈, 코, 입은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다.

↓

↓

장동건의 아내는 예쁘다. 그녀는 눈, 코, 입이 서로 균형을 잘 맞기 때문이다.

III. 비교형 답안의 기본 형식

위의 내용을 통해 비교형 답안의 기본 형식을 짜 볼 수 있다. 요약형과 달리 비교형은 답안의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알아두면 실제 문제를 풀 때 편하다. 게다가 비교형 답안의 형태는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이 비판하는 '정형화된 답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길 바란다.

그러면 가상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가상 문제]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가) Zola는 살라살라~

(나) 장동건은 살라살라~

☞ Zola Guide 문제 푸는 과정의 예 : 문제 확인 → 독해 → 비교표 → 답안 정리

비교표의 예(수업 참고)

	(가) Zola	(나) 장동건
공통점		
차이점		

답안 간단 정리의 예(수업 참고)

[1] 공통점

TC

RE

[2] 차이점

TC

RE

[확인, S1 논술]

[문제]

제시문(나)와 제시문(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300~400자)

[대학이 공개한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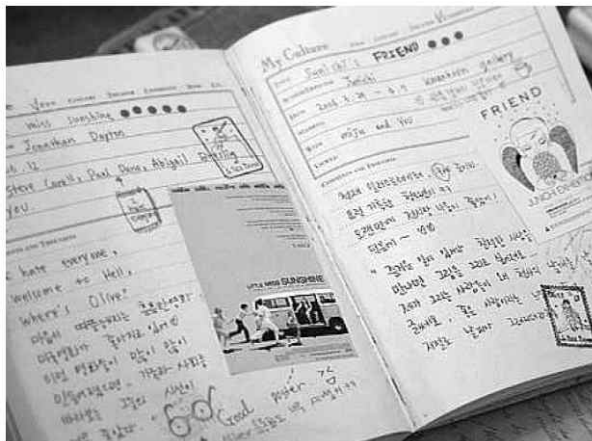
①제시문(나)와 제시문(다)는 책을 읽는 독자나 재평을 하는 시청자 모두 읽거나 보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작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그러나 제시문(나)와 제시문(다)는 **독서하는 대상**이 다르고, **독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③먼저, 제시문(나)는 독서의 대상이 문자가 중심인 책인데 반해, 제시문(다)는 시청(독서)의 대상이 파편화된 영상의 조합이라는 차이가 있다. ④다음으로, 제시문(나)는 하나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방식을 가지는 데 반해, 제시문(다)는 계획성 없이 무질서하게 수시로 채널을 돌리면서 시청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Zola Guide 번호 ①~④와 밑줄은 답안 분석을 위해 편의적으로 Zola가 붙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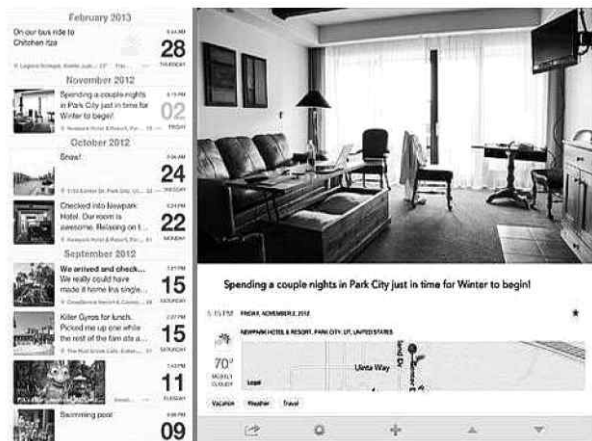
# Zola 연습

☞ **Zola Guide**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자. 각각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은 5~10분 정도면 적당할 듯 싶다. 실제 면접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 시간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풀이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시 요강 또는 입학처에 확인하길 바란다. 분량은 일종의 참고일 뿐이므로 너무 얽매이지 말길 바란다.

[1, S1] 아래 글은 일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A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A와 어머니의 일기쓰기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원고지 200~400자, 문장 5~10문장)



<어머니의 일기>



<A의 일기>

A는 우연히 어머니의 학창시절 일기장을 발견했다. 하루에 한쪽씩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다이어리 방식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에는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이나 하루를 돌아보며 떠오른 생각 등 여러 가지 내용이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날씨와 그날의 기분을 적는 칸에 그림이나 문구를 적어둔 것을 보니 어머니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곳곳에 직접 그려 넣은 그림이나 사진, 스티커, 스탬프 등 아기자기한 장식도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가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나 쪽지도 종종 눈에 띄었다. 비록 고장이 나기는 했지만, 표지에는 자물쇠도 달려 있었다. 남들이 읽지 못하게 잠가두었던 것 같다.

A도 거의 매일 일기를 쓰지만 일기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일기 앱을 다운받아 쓰고 있다. 주로 일상의 풍경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저장한다. 물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짧막하게 적기도 한다. 특별한 곳에 가면 그곳의 위치 정보도 저장한다. A도 예전에는 종이에 일기를 썼지만, 요즘은 앱으로 일기를 쓰는 데 재미를 붙였다. 종이 일기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나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하고,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마다 태그를 붙여두고 나중에 주제별로 모아서 볼 수 있다. 페이스북과 연동해 두면 SNS에 올린 글이 자동으로 앱에 들어오고, 앱에 저장한 사진과 일기 중 원하는 것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옛 일기장 덕분에 어머니의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너도 일기를 쓰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A는 일기 앱을 보여드렸다. 그런데 일기 앱을 본 A의 어머니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일기 같지가 않네!” 하고 말씀하셨다.

[참고] 원고지(20칸×20줄)



[2, K]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생략

(나) 씻어 버려야 할 불명예,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 할 무분별한 일, 개선해야 할 폐단과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는 이상 하루라도 지체하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채 동 트기도 전에 그는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자기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키호테는 조잡한 투구를 쓰고, 싸구려 방패를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씩씩하게 나갔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게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기뻐다.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운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했다.

(다) 생략

(라) 핵분열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일 뿐이다. 이 ‘연구자’들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탄생하게 될 핵무기의 파괴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이 핵무기가 가져올 반인류적인 재앙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어느 순간 고민하기를 멈추고 그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직접 동참해야만 한다. 인권이나 반핵사상을 공고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만 ‘연구자’는 비로소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 (라)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200~400자, 문장 5~10문장)



[참고] 원고지(20칸×20줄)



**Zola 간단 해제**

[1, S1]

[1] A는 우연히 어머니의 학창시절 일기장을 발견했다. 하루에 한쪽씩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다이러리 방식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에는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이나 하루를 돌아보며 떠오른 생각 등 여러 가지 내용이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날씨와 그날의 기분을 적는 칸에 그림이나 문구를 적어둔 것을 보니 어머니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곳곳에 직접 그려 넣은 그림이나 사진, 스티커, 스탬프 등 아기자기한 장식도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가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나 쪽지도 종종 눈에 띄었다. 비록 고장이 나기는 했지만, 표지에는 자물쇠도 달려 있었다. 남들이 읽지 못하게 잠가두었던 것 같다.

[2] A도 거의 매일 일기를 쓰지만 일기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일기 앱을 다운받아 쓰고 있다. 주로 일상의 풍경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저장한다. 물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짤막하게 적기도 한다. 특별한 곳에 가면 그곳의 위치 정보도 저장한다. A도 예전에는 종이에 일기를 썼지만, 요즘은 앱으로 일기를 쓰는 데 재미를 붙였다. 종이 일기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나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하고,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마다 태그를 붙여두고 나중에 주제별로 모아서 볼 수 있다. 페이스북과 연동해 두면 SNS에 올린 글이 자동으로 앱에 들어오고, 앱에 저장한 사진과 일기 중 원하는 것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3] 옛 일기장 덕분에 어머니의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너도 일기를 쓰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A는 일기 앱을 보여드렸다. 그런데 일기 앱을 본 A의 어머니는 “이건 아무리 봐도 일기 같지가 않네!” 하고 말씀하셨다.

**Zola의 비교표(예시일 뿐임)**

	종이 일기(엄마)	일기 앱(딸)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li> <li>* 친구와 소통</li> <li>* 글+사진·그림 등을 혼합</li> </ul>	
차이점	글 중심(문자·텍스트 중심)	그림·사진(이미지) 중심 (글은 짤막하게)
	분량 제한(한쪽씩)	분량 제한 없음
	중요한 일	일상적인 것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때(순간적)
	편집 불가능	편집 가능(주제별로 모아서 볼 수 있음)
자물쇠(개인적, 비밀)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보여줄 듯)	* 친구와 공유(개방적) (SNS에 공개됨)	

대학측 답안 예시

	종이 일기(엄마)	일기 앱(딸)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욕구와 비밀유지 욕구(열쇠, 비밀번호)</li> <li>○ 일상을 글로만 기록하지 않고 그림, 사진, 상징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li> <li>○ 일기의 일부를 친구와 공유</li> </ul>	
차이점	○ 종이에 저장하는 아날로그 기록	○ 온라인 공간에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
	○ 글 중심의 기록	○ 사진 중심의 기록
	○ 하루에 대한 회고	○ 매 순간의 기록
	○ 지면 제약에 따른 기록량 제한	○ 기록 분량에 사실상 제한이 없음
	○ 지면 범위 안에서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글, 그림, 스티커 등을 배치	○ 앱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내용을 배열할 수 있음
	○ 물리적 잠금장치(열쇠)	○ 가상의 잠금장치(비밀번호)
○ 친한 친구와 제한적으로 공유	○ SNS를 통해 다수와 공유	

☞ **Zola Guide** 대학측이 제시한 답안에 비교형의 기본이 잘 드러나 있다. 위 표를 보면 차이점의 점선은 Zola가 표시한 것이다. 실제 대학 답안에는 점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학측에서는 점선은 없더라도 순서대로 1:1 대응을 시켜서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이 차이점을 설명할 때 지켜야 할 ‘평가 기준’인 셈이다.

[2, K]

(나) 씻어 버려야 할 불명예,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 할 무분별한 일, 개선해야 할 폐단과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는 이상 하루라도 지체하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채 동 트기도 전에 그는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자기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키호테는 조잡한 투구를 쓰고, 싸구려 방패를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씩씩하게 나갔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게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기뻐다.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운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했다.

(라) 핵분열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일 뿐이다. 이 ‘연구자’들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탄생하게 될 핵무기의 파괴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이 핵무기가 가져올 반인류적인 재앙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어느 순간 고민하기를 멈추고 그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직접 동참해야만 한다. 인권이나 반핵사상을 공고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만 ‘연구자’는 비로소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Zola의 비교표(예시일 뿐임)**

	(라) 지식인	(나) 돈키호테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 문제에 관심</li> <li>*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li> <li>*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행동)</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인 지식 보유</li> <li>신중함 - 고민에 고민을 거듭함</li> <li>자기 생각을 공유함-사람들과의 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적인 지식 없음</li> <li>즉흥성 또는 신속성 -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음,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함’</li> <li>자기 생각을 공유 안 함-자기 생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li> </ul>

**Zola 예시 답안**

지식인과 돈키호테의 공통점은 3가지입니다. 우선 현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인과 돈키호테의 관심과 의지, 실천에는 3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돈키호테에서는 현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행동은 운명에 맡기는 비과학적인 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식인은 이론적 또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돈키호테의 행동은 말이 가는대로 가는 즉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식인은 행동하기 이전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키호테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독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은 자신의 생각을 모두에게 알리는 공개성이 있습니다.

(원고지 405자, 10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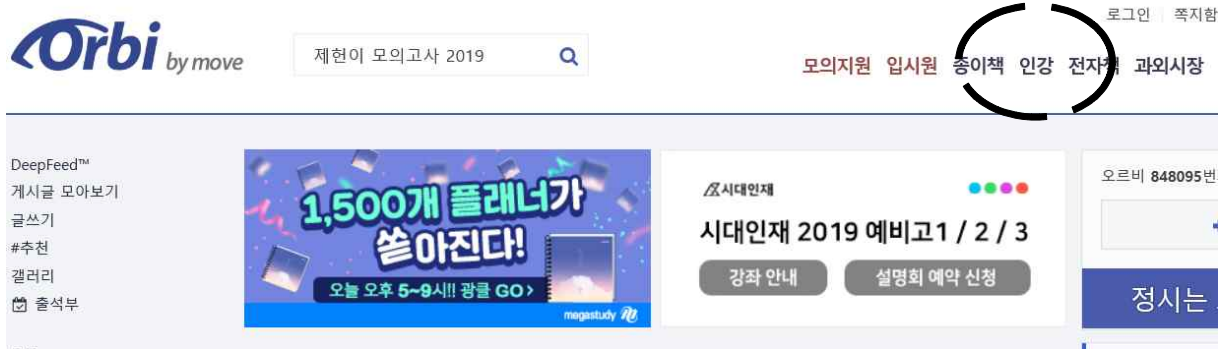
**[대학측 해설]**

제시문 (라)에 기술된 ‘지식인’의 특성을 이론과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논리적으로 답변해내는 능력과 이를 제시문 (나)와 관련지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Zola를 찾는 법

1. 인강

(1) orbi(오르비)를 치면 상단에 '인강' 이 있음.



(2) 인강>사회를 확인하면 '김준호' 가 있음. 이 존재가 zol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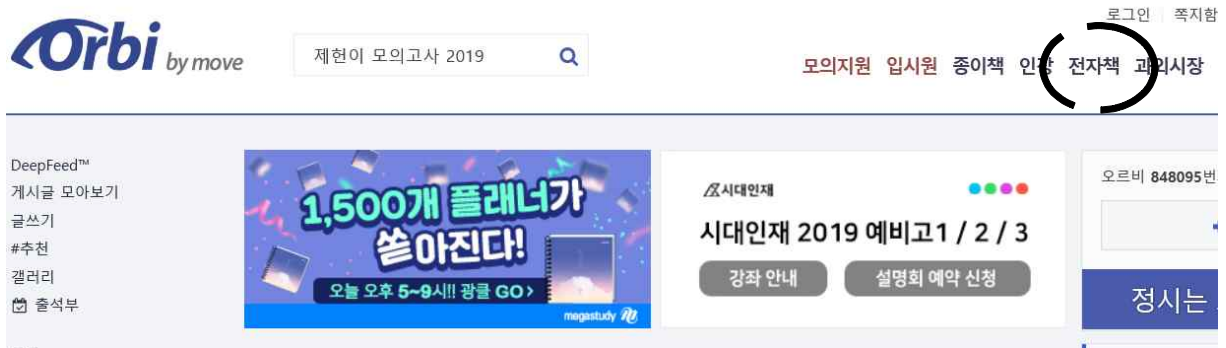


(3) 김준호를 확인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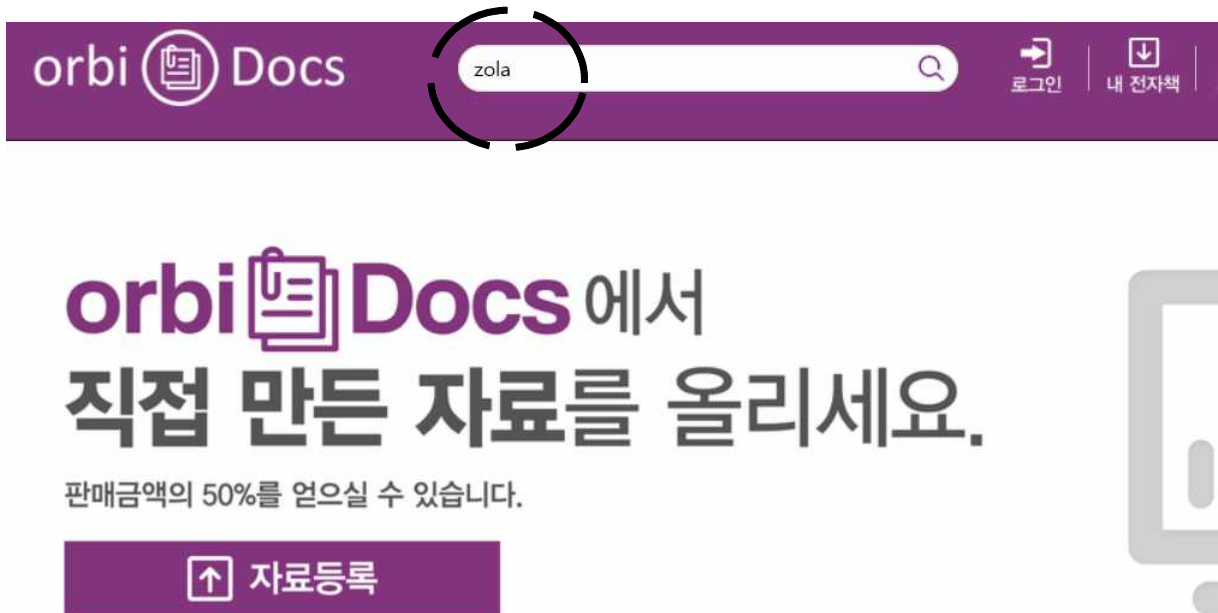
열공+즐공=대박!!

2. 교재-전자책

(1) orbi(오르비)를 치면 상단에 ‘전자책’ 이 있음.



(2)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임. zola로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편한대로 둘러보시면 됨.



(3) 결제하면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음.  
이후부터는 님들이 열공+즐공=대박!!

-----공개 자료는 1~2일 정도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양으로 정했습니다.  
면접 준비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자책(약 90쪽 분량)을 이용해 주세요.  
열공+즐공=대박!!!